

토종 SNS ‘싸이월드’ 5월 부활... “아기자기 미니홈피 선물”

모바일·웹 2개 서비스 동시 오픈
싸이월드제트, 싸이월드 운영권 양도
110억 가량 투자, 서비스개발 매진
기존모습은 유지... 새 기능 서비스



/싸이월드제트

토종 소셜미디어(SNS)인 싸이월드가 5월 부활한다. 당초 웹 버전을 오는 3월 먼저 선보이고, 모바일 버전은 상반기 중 공개한다고 했지만 모바일 사용자가 많은 환경을 고려해 두 버전을 동시에 선보이기로 했다.

22일 싸이월드제트는 오는 5월 싸이월드의 웹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동시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싸이월드제트 관계자는 “기존 트래픽 데이터들을 보면, 유저들의 웹서비스를 통한 접속이 5%, 모바일서비스를 통한 접속이 95%

였다”며 “이용자들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 웹과 모바일을 동시에 오픈 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싸이월드제트는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10억원 상당의 직원 임금채권 해결을 조건으로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신설 법인으로 설립됐다. 싸

이월드제트는 110억원가량의 투자를 받아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는 현재 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제작사인 ㈜에프엑스기어와 싸이월드의 기존 서비스 복구 및 모바일 버전 개발을 진행 중이다. 에프엑스기어는 국내 최고의 인력들이 소속되어 있는 개발사로, 14년간 미국 드림웍스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대형통신사의 ‘AR 아바타 생성 및 애니메이션 적용 개발’ 프로젝트를 완벽히 수행하기도 했다. 에프엑스기어 최광진 대표는 “회사의 석박사급 인력을 모두 투입할 정도로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아기자기한 미니홈피를 유저들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태까지 싸이월드는 모바일 버전으

로 서비스된 적이 없는 만큼 첫 모바일 싸이월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감이 높다. 1999년 시작된 싸이월드는 2001년 ‘미니홈피’ 서비스를 출시하며 큰 인기를 누렸지만, 2011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글로벌 SNS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스마트폰의 본격 보급에 따라 SNS 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쇠락의 길을 걸었다.

부활하는 싸이월드는 기존의 모습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자의 아바타인 ‘미니미’가 모바일 버전에서는 두가지 형태로 등장한다. 하나는 기존의 미니미를 그대로 살린 버전이다. 1999년 만들어진 미니미 및 미니룸 아이템들은 저화질 시절에 일일이 점을 찍어서 만든 것인데, 이를 현재의 고화질에 그대로 적용하면 미니미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

때문에 현재 싸이월드제트는 수작업을 통해 과거의 미니미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는 ‘2021년의 미니미’다. 에프엑스기어가 보유한 AR 기술을 통해 더욱 감쪽한 미니미를 만들어낼 계획이다.

싸이월드제트는 “오리지널 미니미의 모바일 구현에는 어떠한 수작업이 들어가지고 고객의 도토리도 만든 미니미이기 때문에 완벽히 재현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사이버머니였던 도토리는 가상화폐로 등장할 전망이다.

다양한 SNS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 속 싸이월드 부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감은 높다. 새로워진 싸이월드가 국내 SNS 시장에 가져올 변화가 주목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ooul.co.kr



/GS리테일

‘페트병 업사이클링 의류’ 편의점서 판다

GS리테일-블랙야크, 사업 제휴

편의점의 PB(자체 상표) 무라벨 생수 페트병으로 만든 의류가 다시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GS리테일은 ESG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아웃도어 기업 비아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행보에 나섰다.

GS리테일은 지난 19일 양재동 소재의 블랙야크 본사에서 김중수 GS리테일 전무와 강준석 블랙야크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협업 ▲자원순환 제품의 공동 개발

▲자원순환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 협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이 블랙야크와 제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블랙야크가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기능성 의류 및 등산 용품을 생산하는 페트병 자원 순환 기술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자원 재활용 우수 기업이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이를 위해 GS25, GS수퍼마켓(GS더프레시) 등 오프라인 점포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점차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수거된 페트병을 블랙야크 측에 보내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BMW코리아, 2월 한정 에디션 4종 출시

BMW코리아가 2월 한정 에디션 4종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오후 2시 6분 BMW 샵 온라인에 공개될 모델은 ‘뉴 M5 컴페디션 이몰라 레드’와 ‘M2 CS 카본 세라믹’, ‘뉴 M550i xDrive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M340i 드라비트 그레이’다.

뉴 M5 컴페디션 이몰라 레드는 5대만 한정 출시된다. 이몰라 레드를 적용

하고 M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적용했으며, 4.4리터 V8 M 트윈파워 터보 엔진에 8단 M 스탭트로닉 변속기로 고성능도 구현했다. 가격은 1억6760만원이다.

아울러 M2 CS 카본 세라믹과 뉴 M550i xDrive 25대, M340i 드라비트 그레이 30대가 소장가치를 높여 한정 판매된다.

/김재용 기자 juk@

CU, 몽골겨냥 PB ‘GET카페라떼캔’ 출하

용량 키우고 우유·설탕 함량 늘려
현지 CU 데이터 바탕 트렌드 반영

BGF리테일이 오직 몽골 CU를 위한 상품을 기획해 수출한다.

BGF리테일은 CU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해외수출용 PB상품인 ‘GET카페라떼캔’의 생산 전량(2만개)이 인천항을 떠나 몽골 울란바토르로 출하됐다고 22일 밝혔다.

GET카페라떼캔은 GET원두커피에 사용되는 커피원두와 배합비를 그대로 사용한 RTD 커피로 2016년 국내에서 처음 선보여 2년간 판매됐던 상품이다.

CU는 275ml로 국내에서 판매되던 상품 용량을 390ml로 확대하고 레시피도 우유와 설탕 함유량을 늘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강조하는 등 몽골 현지 고객들의 기호에 맞춰 해당 상품을 리뉴얼했다. 가격은 3900MNT(약1500원)이다.

포드, 정통 픽업트럭 ‘뉴 포드 레인저’ 사전계약

와일드트랙·랩터, 두가지 트림 출시

포드코리아가 정통 픽업트럭 뉴 포드 레인저 국내 출시에 앞서 22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포드코리아는 ‘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레인저 랩터’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수입 픽업트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다. 포드의 픽업트럭 레인저는 전 세계 130개국 및 5개 대륙의 다양한 환경과 거친 기후, 지형에서 주행 테스트를 거친 모델로, 픽업트럭을 넘어서 다재다능한 다목적 차량으로 활용될 수 있게 디자인됐다.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랩터는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연비는 와일드트랙 10.0km/L, 랩터 8.9km/L다. 최고출력



/BGF리테일

CU가 GET 카페라떼캔을 몽골 전용 상품으로 재출시하는 것은 즉석에서 원두를 갈아 내린 아메리카노를 선호하는 한국과 달리 몽골에서는 라떼를 찾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CU에 따르면, 지난달 몽골 CU에서 판매된 GET커피 중 절반(52%) 가량이 라떼로 판매됐다. 특히 추동절기에 라떼 판매량이 급증하는 한국과 달리 몽골에서는 사시사철 라떼가

커피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GET커피라떼는 아메리카노로 추출되는 GET커피에 고객이 직접 원하는 맛의 라떼 파우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몽골 CU에서 판매되는 GET커피 전용 라떼 파우더의 점포당 하루 판매량은 한국 CU 대비 무려 31배나 많다.

이처럼 CU가 몽골을 겨냥한 전용 상품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서 10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빅데이터 덕분이다. 몽골 CU의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지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한편, 몽골의 CU에서 판매되는 전체 상품 중 약 30%가 한국 상품이며 CU를 통해 간접적으로 몽골 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은 스낵, 라면, 음료 제조사에서부터 삼각김밥 등 간편식품 원재료 공급 업체까지 40여 곳으로 늘어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레인저 랩터는 포드의 고성능 자동차 사업부인 포드퍼포먼스팀의 DNA를 이어받아 오프로드와 험로 주행에 더 특화된 모델이다.

단단한 하체구조와 폭스 쇼크업소버(FOX Shock Absorber), 그리고 울터 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 오프로드에서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랩터에는 6모드 지형관리시스템 중 오프로드 레이싱 모드인 ‘바하 모드’도 탑재되어 오프로드에서 퍼포먼스 주행도 가능하다.

포드의 정통 픽업트럭 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랩터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부가세 포함 레인저 와일드트랙 4990만원, 레인저 랩터 6390만원(3.5% 개별소비세 적용)이다.

/양성운 기자 ysw@